

ISSN 1229 - 6198

大韓醫療氣功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VOL. 9. NO.1 2006

大韓醫療氣功學會

激勵辭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은 반 만 년의 민족 역사와 궤를 같이하면서 끊임없이 보완·발전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도 했고, 때로는 외래의 선진이론을 수용하여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漢醫學이라 표기했던 韓醫學의 명칭이 바뀐 때는 1986년입니다. 대한 의사협회에서 '漢'을 '韓'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고 보건사회부의 채택과 법령개정을



大韓韓醫師協會長

엄종희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漢의학이란 중국의 한나라 때 형성된 의학이라는 의미이며, 기본적인 이론체계와 임상의학의 제반 내용들은 현재에도 漢의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의학이라 바꾼 것은 첫째, 허준과 이제마가 우리 의학을 東醫라 했듯이 우리 의학의 독창성과 자주성을 발휘하여 우리나라에 알맞는 의학으로 변형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둘째, 구한말 이후 침체된 전통 의학을 중국 중의학이나 일본의 황한학과 차별화하여 현대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치료기술도 다양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한의계는 구태의연에 머무르지 않고 한의학을 고부가가치의 생명

자원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한의약이 세계의약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한의학을 세계화하여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관심과 학술연구가 필요합니다.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못지 않은 혁신적 이론과 연구적 성과가 한의학계에서도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醫療氣功은 調氣, 行氣하는 한의학의 핵심입니다. 기공요법을 잘 활용하는 것은 줄기세포를 활용하여 얻는 의학적 성과에 가능할 것입니다.

대한 의료기공학회 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의료기공학회지 제9권 1호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한의학회 뿐만이 아니라 한의학계 전체의 발전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의사로서 또한 의료기공학회 회원으로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정진할 때, 한의학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 질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논문을 집필하신 대한의료기공학회 회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공 분야에서 귀중한 연구의 성과물이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2006. 3

大韓韓醫師協會 會長 엄 종 희

激勵辭

대한의료기공학회 학회지 출간에 부쳐...

지난 한 해 한의계는 IMS(경근침자법) 사태를 비롯해 양방의 한의학 폄하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의 끊임없는 제도권 진입 기도 등 유난히 한의학에 대한 도전과 그로 인한 회원들의 시련이 많았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의학회는 이런 일련에 사태 속에서 협회와의 공조체계를 유지해 학문적인 근거를 마련해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지키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한의학회가 존속하는 그날까지 우리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지켜내는 선봉장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한의학회는 지난 한 해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 제10회 한·중 학술대회, 한국한의학연구원과의 전통의학지식협력체계 구축 등 많은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앞으로 다가올 의료시장 개방과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도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국민 속의 한의학, 세계 속의 한의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편 전통적인 한의학 치료방법을 양방에서 자기 영역인 양 침범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한의학 치료영역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의료기공 분야 역시 한의학에서 양방과 차별화 할 수 있



大韓韓醫學會長

박동석

는 비교우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공은 조신(調身)·조식(調息)·조심(調心)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精)·신(神)·기(氣)·혈(血), 오장육부와 경락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며 수명을 연장하고 잠재된 능력의 발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공이라는 분야를 통해 ‘기(氣)’의 존재를 산업화된 사회속에서 확인시켜 주는 합당한 객관적·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학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기공학회에서는 기에 대한 임상적 연구결과와 문헌고찰을 통한 논문을 꾸준히 발표되고, 학술집담회와 워크샵 등을 통해 학회의 역량을 다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의료기공이라는 학문이 양방에 비해 비교우위 경쟁력을 지닌 한의학의 하나의 영역으로 확고한 자리매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귀 학회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하며, 향후에도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3

大韓韓醫學會 會長 박 동 석

發刊辭

시대와 민족이 바라는 의학으로...

교육수준의 향상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의료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갈수록 높아가는 시대입니다.

물질적 부유함이 잘 사는 가치로 여겨져 왔던 현대산업 사회는 웰빙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그 동안 낮게 평가되었던 정신적 여유와 안정, 건강과 행복의 재해석을 거듭하며 변모하고 있으며 의료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도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의학계 역시 정확한 판단과 적용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야만 진정 이 땅의 민족 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의학정보의 교류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전통의학이 그 빛을 잃지 않으면서 현대적 의미로 다가갈 수 있도록 계승하는 작업은 아직도 많은 보완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의 기본 사상이며 실체인 기의 연구가 관념적 영역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치료와 직결되어 대중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은 한의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인 동시에 이 시대의 한의학자들이 견지해야 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의료기공학회지의 발간은 한의학과 기공의 관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전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질병을 바라보는 한의학의 우수한 관점을 다양하게 정리하여 의료상식으로 보편화하기 위한 시도는 보건의료 측면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다 할 것입니다.

바쁜 가운데 귀한 원고를 보내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전체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大韓醫療氣功學會長

박재수

2006. 3

大韓醫療氣功學會 會長 박재수

目 次

■ 激勵辭

-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 大韓韓醫師協會 會長 엄종희
대한의료기공학회 학회지 출간에 부쳐... : 大韓韓醫學會 會長 박동석

■ 發刊辭

- 시대와 민족이 바라는 의학으로... : 大韓醫療氣功學會 會長 박재수

高血壓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外氣發功의 有效性 고찰 김주미 · 박중웅 · 박령준 · 필감매 · 선재광	1
금기약물과 관련하여 임신 중 사용된 처방에 대한 연구 유경훈 · 김창민 · 박령준 · 최형일	49
스트레스성 질환의 증상을 갖는 환자의 Turbosonic WBV 시행 전후 혈관탄성도 변화 장윤정 · 정순덕 · 장명준 · 이기남	70
궁도요법의 한의학적 고찰 배재룡 · 김창민 · 나삼식 · 박령준	110
전통적 태교와 현대적 태교에 관한 고찰 정대성 · 박종익 · 안훈모 · 이기남	158
水升火降의 原理와 身體 振動時 氣의 變化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심상훈 · 김준철 · 이재흥 · 이기남	196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外氣發功의 有効성 고찰 김태은 · 박중웅 · 박령준 · 선재광	217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외과 수술에 관한 비교 고찰(동의보감 중심) 권중철 · 유광렬 · 정순덕	238

[부록]

■ 大韓醫療氣功學會 會則 全文	275
■ 大韓醫療氣功學會 논문 규정	282
■ 大韓醫療氣功學會 기구조직 및 임원	293